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현황 및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

The Study about Analyzing the Present Situation of Alternative Formats for Bibliotherapy of the Disabled People

백 재 은 (Jae-Eun Baek)**

목 차

- | | |
|------------------------|------------------------|
| 1. 서론 | 4.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현황 분석 |
| 2. 이론적 배경 | 4.1 독서치료 독서목록별 대체자료 분석 |
| 2.1 독서치료와 독서치료 독서목록 | 4.2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
| 2.2 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와 대체자료 | 목록 제안 |
| 2.3 선행연구 | 5. 결 론 |
| 3. 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 현황 조사 | |

초 록

감정적, 심리적 상처와 문제를 독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독서치료는 일반적으로 일반인(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책(치유서)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자가치료법이다. 일반인과 다르게 장애인은 책이 아닌 대체자료를 이용하여 독서치료를 실시한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소외감, 불안감 등 여러 심리적인 상처를 받거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게 된다. 장애인의 독서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여 장애인도서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 활성화 단계라고 볼 수 없다. 독서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독서치료를 위한 자료에의 접근을 도와주는 독서치료 목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대부분 일반인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 대체자료 목록, 혹은 병리증상 혹은 상황에 따라 카테고리화된 대체자료 목록은 별도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와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개발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ABSTRACT

Generally, Bibliotherapy is aimed to cure the emotional or psychological wounds by using books for common users as self-treatment. But, Bibliotherapy for disabled people is carried out by alternative formats instead of a book. In library for the disabled, it is developing various bibliotherapy programs, but not yet activated. In order to carry out bibliotherap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bibliotherapy catalog preferentially. However, most Bibliotherapy catalogs are created for the common users, not for disabled people specially. How to make the special catalog for disabled people and catalog of alternative formats according to pathological symptom or situation is still a big problem. Basing on this premise, the author examined the necessity of bibliotherapy catalog for disabled people,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alternative materials for the bibliotherapy. And then, the author proposes plans of bibliotherapy for how to build the bibliotherapy for disabled people.

키워드: 대체자료, 독서치료, 독서치료 독서목록, 장애인, 치유서

Alternative Formats, Bibliotherapy, Bibliotherapy Catalog, Disabled People, Self-help Book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IA5B4037624).

** 덕성여자대학교 정보연구소 연구교수(jaeeunb1979@duksung.ac.kr)

논문접수일자: 2016년 10월 24일 최초심사일자: 2016년 10월 24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11월 1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4): 165-184, 2016.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4.165]

1. 서론

급변하는 사회와 가정에서 현대인들은 끊임 없는 경쟁, 각종 차별, 스트레스와 사고 등으로 점점 지쳐가고 있다. 몸은 물론 마음까지 지쳐 있던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감정, 정신건강, 심리상처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관심은 정신건강 치료법의 개발, 확산,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로 이어졌다.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자가치료’에 점차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자가치료’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독자 스스로 파악한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법으로,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가치료법은 책을 매체로 이용하여 치료를 진행하는 “독서치료”가 있다(백재은 2015). 다시 말해, 독서치료는 독서치료 참여자가 책을 선정하고 읽으면서,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여 치료에 도달하는 자가독서치료법이다(원동연, 유혜숙, 유동준 2013). 독서치료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구성요소는 대상자(혹은 참여자), 독서행위 그리고 치료를 도와주는 도구인 치유서이다.

일반적으로 독서치료는 인쇄물의 형태로 간행된 책, 즉 치유서를 이용하여 실시된다. 참여자가 독서라는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상처와 감정을 치유 혹은 치료하는 독서치료를 위해서는 독서행위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독서치료는 주로 일반인(이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

인 수¹⁾는 전체 국민수의 5.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에 의하지만, 273만 명의 장애인 중 88.9%는 사고·질환 등의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하였다. 장애인은 장애의 원인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장애를 지니고 있기에 열등감, 소외감, 불안감 등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와 상처 등을 가지고 있다(이현주, 강상경 2009). 또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우울감 경험률과 자살 생각률이 2배 이상 높아 감정적, 정신적, 심리적 문제 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상태가 열악하여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는 반면 심리사회적 자원은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우울의 위험이 일반인들보다 높을 수 있다(이현주, 강상경 2009). 다시 말해서, 이는 장애인 역시 장애인을 위한 심리치료 혹은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건강 치료법의 하나로 독서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책은 독서치료에 있어 필수 요소로 이를 이용하여 독서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비장애인 중에도 독서장애인과 같이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장애인내에도 독서는 물론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위해서 대체자료가 제작되어 제공되고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대체자료를 “일반적인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번안하여 제작한 자료”로 정의하고 있다(국립장애인도서관 2015). 대체자료는 장애인에게 있어 책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고,

1)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2014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장애인은 2,726.9천 명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 비해 43.4천 명 증가하였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독서치료의 도구이자 매체로 이용되는 것이다. 즉, 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는 대체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독서치료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각 기관 및 도서관에서의 치유서 개발, 독서치료 프로그램 시행, 독서치료 독서목록 발간 등을 시작으로,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진행 및 치료 효과 검증 등으로 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1999년 한국도서관협회 상황별 독서목록의 발행을 시작으로 남산도서관, 울산남부 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등 여러 도서관과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생산 및 개발되고 있다.

독서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독서치료 독서목록이 필요하고, 준비되어야 한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다양한 치유서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스스로 치유서에 선택 및 접근하여 자가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치유서를 대상 키워드와 상황 및 병리증상 키워드로 카테고리화하여 구성 및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는 독서목록의 작성과 이용의 목적에 따라서 영상자료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주로 인쇄물로 간행되거나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고, 이들 독서목록은 대부분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다. 즉, 현재 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별도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인쇄물의 형태로 간행된 치유서를 이용하여 독서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장애인 역시 정신건강 치료

를 필요로 하는 만큼, 대체자료를 이용한 독서치료가 실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독서치료 대체자료는 물론 대체자료 목록이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위해서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한국점자도서관을 대상으로 각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체자료를 수집하여, 현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치유서와 비교를 실시,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 도서관의 사서와 인터뷰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대체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독서치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목록 개발방안을 제안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독서치료와 독서치료 독서목록

독서치료는 biblio(책 혹은 문학)와 oepatteid(치료하다 혹은 도움이 되다)부터 파생된 용어로, '책의 도움을 받다 혹은 책으로 치료하다'로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다(백재은 2015). 독서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과거부터 널리 알려져 왔고, 20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과 함께 치유서 개발,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발간 등으로 관심이 고조되

있고, 현재는 각종 분야에서의 연구진행과 함께 독서치료를 통한 효과 검증이 실시되고 있다.

독서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용자(대상), 치유서(도구) 그리고 독서(행위)이다. 김정근(2004)은 “독서치료에서 마음의 병을 도와주는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독자 자신이고, 그것을 돕는 이는 책(도서)이며 독서행위 자체”라고 서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독서치료에 있어서 이용자는 독서라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행위자이자 치료자가 되고, 책은 치유서로서 이용자의 치료를 도와주는 중요한 매체이자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서는 독서치료를 위한 책으로, 책의 장르나 유형에 상관없이 이용자가 책을 통해서 치유에 도움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면, 모두 치유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치유서를 상황 및 증상 키워드로 카테고리화하여 제공하는 목록이 독서치료 독서목록이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치유서 목록으로, 이용자가 치유서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일반 독서목록과 다르게 독서를 상황, 감정, 증상, 장애 등과 같은 키워드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고, 이용자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 혹은 증상에 따라 원하는 치유서에 접근할 수 있다.

한국도서관협회(2004)에서 간행된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에 의하면,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이용자의 목적과 상황,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가치를 중요시해야 하고, 독

서목록의 개발을 위해서 이용자의 모든 면을 파악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작성하고 치유서를 선정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고, 이용자의 목적과 상황,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 및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2.2 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와 대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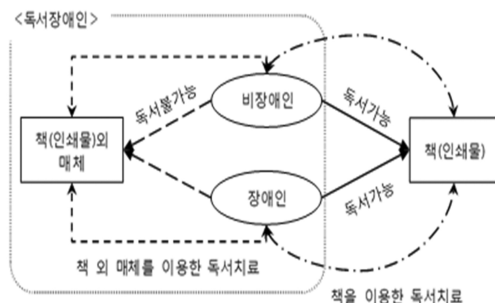
독서치료는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용자 스스로 치유서를 선택하여 독서를 실시하는 자가치료 방법으로, 비장애인이 주 대상자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적 소외감과 차별, 자아존중감 결여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독서치료의 대상으로, 비장애인은 물론 독서장애인²⁾을 포함한 장애인까지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서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프로그램과 매체를 제공해야 하고, 이용자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매체를 선택해서 이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독서치료는 치유서(인쇄물)를 주된 매체로 활용되고 있지만, 장애인은 치유서가 아닌 대체자료를 주된 매체로서 활용하고 있다. 즉,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는 책을 대신하는 매체이자, 장애인에게 있어 일반인의 치유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장애인을 위한 치유서’라고 표현할 수 있다.

2) 독서 장애인은 “시각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한다(독서문화진흥법 2조 3항). 다시 말해서, 일반인이라고 해도 책을 읽는 행위에 있어서 불편을 느낀다면 독서장애 혹은 독서장애인이라고 표현한다(장보성, 김규환, 이현정 2009; 김정심, 남영준, 서만덕 2015).

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는 다양한 형태의 대체자료를 이용하여 책의 내용을 전달받고 이해하면서 스스로 상처를 치료 혹은 치유받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대체자료로는 녹음자료(오디오 북, 보이스 브레일 도서), 점자·목자자료(점자라벨 도서), 비디오, 녹화자료(CD-ROM), 수화영상도서, 시각원문 도서(PDF, BBF) 등이 있다. 대체자료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고 있고, 대체자료의 수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일반자료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국립중앙도서관 2014).

〈그림 1〉에서는 2.1장과 2.2장에서 언급한 독서치료를 위한 매체와 이용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이용자과 독서치료를 위한 매체들과의 관계

2.3 선행연구

독서치료에 대한 연구는 문헌정보학뿐 아니라 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고, 장애인에 관련된 연구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문

헌정보학의 시각에서 독서치료와 대체자료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 있는 연구들을 나열하여 기술하였다.

김정심, 남영준, 서만덕(2015)은 독서장애인을 위한 전자책을 개발하기 위해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책 요구사항을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하고 있다. 특히, 신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유형별 이용형태와 독서장애인의 전자책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여, 청각 및 시각 장애인들에게 있어 전자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 콘텐츠의 다양성, 접근성과 최신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서 독서장애인에 대한 개념과 함께 전자출판물에 대한 조사, 전자책에 대한 독서장애인의 직접적인 요구사항을 통해서 독서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의 개념과 분석결과를 본 연구에 참고하였다. 이 논문은 독서장애인이라고 하는 넓은 범주 내에서 전자책이라고 하는 대체자료를 분석했다는 점이 본 연구와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백록담과 김유승(2016)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대체자료의 제작 및 활용의 근거가 되는 정책 및 법령, 도서관 대체자료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추구하기 위해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에서의 장애인 서비스와 도서관법, 장애인 복지법, 저작권법 등을 면담분석과 함께 기술하고 있다. 이 논문은 대체자료에 관련된 법령과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어 본 연구와 연구방향이 조금 다르지만, 연구대상으로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김용수(2011)는 장애·비장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치료를 활용한 사회 통합 인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 증진과 사회적 거리감 감소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독서치료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자아존중감이 증진되고 사회적 거리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효과를 나타냈다. 다만, 지식측면의 사회적 거리감에서는 장애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 논문은 장애 학생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문제들로 인해 저하된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독서치료가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장애인의 심리적인 문제와 직접적인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자아존중감 증진효과를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에게 있어 독서치료의 필요성 또한 재확인할 수 있었다.

김선호(2011)는 2009년까지 장애를 주제로 발표된 기존의 문헌정보학 관련 연구논문을 신체장애와 독서치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현재와 미래의 동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장애를 주제로 한 연구는 점차 증가하였고, 신체장애 중 시각장애와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았다는 결과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을 기준으로 신체장애와 독서치료에 관련된 연구 생산량은 비슷하다는 결과를 함께 나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논문을 통해서 본 연구의 기초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장애와 독서치료의 연구동향에 대해 검토할 수 있었고, 독서치료와 장애인에 관련된 연구는 지속되고

있으며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3. 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 현황 조사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장애인도서관은 39개관으로, 그 중에서 독립건물과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도서관은 8개관에 불과했다(국립중앙도서관 2012). 장애인자료실 및 장애인 코너가 설치된 도서관은 261개관이 있지만, 전담 직원 혹은 사서가 배치된 곳은 85개관에 불과했다(표윤희 2014). 이는 장애인도서관은 물론 담당 직원 역시 아직 많이 부족하고 장애인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독서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8개관의 장애인도서관 가운데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한국점자도서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서와 인터뷰 및 설문지 그리고 도서관의 웹사이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립장애인도서관(2016)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를 확대하여 2012년 설립되었고, 2015년 현재 3만 권 이상의 대체자료를 소장 및 제공하고 있다.³⁾ 한국점자도서관(2016)은 한국 최초의 점자도서관으로, 2000년부터 독서장애인을 포함한 여러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체자료의 제공 및 개발과 함께 각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⁴⁾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

3)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online] <<http://nlid.nl.go.kr/able?act=bookLibraryList>>.

4) 한국점자도서관 홈페이지. [online] <<http://infor.kbll.or.kr/index/index.php>>.

스를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이들 도서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독서치료에 관해서 인터뷰와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와 설문지 조사는 도서관과 사서의 실정에 따라 대면과 서면인터뷰 모두 진행하였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직접 방문하여 사서와 대면인터뷰를 실시하였고, 한국점자도서관은 도서관 프로그램 담당 사서와 서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독서치료 프로그램과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독서목록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표 1>에서는 두 곳의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 문항과 응답을 동시에 표기하여 보여주고 있다.

독서치료에 관한 조사 결과를 나열하면, 설문지 문항에 의한 응답은 두 곳의 도서관 모두 동일하였다. 우선, 두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약 10~20명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한국점자도서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포함하여 행복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해당 도서관의 사서보다 주로 강사를 초청하여 강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다. 장애로 인해 글자를 모르거나 읽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서 수화통역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사서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장애인에게 정보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의사소통에 의한 시간제약 등의 여러 애로사항들이 발생되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사서가 직접 강사들을 교육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두 곳의 도서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1달에 1~2회 혹은 2주에 1회의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표 1〉 장애인의 독서치료 현황조사를 위한 설문지 문항과 응답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한국점자도서관)

설문지 문항	네	아니오
1. 독서치료 프로그램(강연,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네	
2.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네	
3.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사서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아니오
4.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한다.	네	
5. 강사가 프로그램 진행 시, 직업과 전문분야를 적어주세요.	논술지도사, 수화통역사	
6.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진행 회수를 적어주세요.	1~2회/1달	
7. 독서치료를 위한 치유서 목록 혹은 대체자료 목록을 사용 및 구비하고 있다.		아니오
8. 독서치료를 위한 치유서 목록 혹은 대체자료 목록은 현 도서관에서 작성한 목록이다.		아니오
9. 목록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목록의 서명과 저자명을 작성해 주세요.		
10. 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혹은 목록에 관한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치유서 혹은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들을 이용하여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도서관에서는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목록 혹은 리스트는 별도로 작성 및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인터뷰에 응해주신 사서를 통해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목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후천적인 장애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 심리적 으로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장애인의 발생 시기와 장애명칭 등에 따른 독서치료 목록이 개발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가정의 구성원이 장애인일 경우, 예를 들어, 장애인 부모와 비장애인 자녀 혹은 이 반대의 경우가 적지 않다. 가족의 구성원에 의해 발생하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록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는 문제들과 심리적인 변화 등에 대해 상황별과 구체적인 연령별로 구분된 목록이 있었으면 한다.’

국내 장애인도서관은 현재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소수의 점자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복지관, 종교단체 내에 설치되어 있어 규모와 예산이 열악하다(황룡진, 공순구 2015). 그러나 이들 도서관에서는 독서치료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사서 역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두 곳의 장애인도서관 사서와의 인터뷰와 설문지를 통해서, 사서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의 필요성, 프로그램과 대체자료의 개발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장애의 유형이 다양하고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좀 더 구체적인 발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체자료의 개발을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의 개발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러 면에서 아직 미흡하지만 독서치료 프로그램 실시와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개발 등과 같이 장애인의 독서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기에, 앞으로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와, 대체자료 목록의 작성 및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로 독서치료 관련 대체자료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4.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현황 분석

4.1 독서치료 독서목록별 대체자료 분석

대부분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인쇄물의 형태로 간행된 도서자료로 구성되어 있고, 기관 혹은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영상자료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는 목록도 있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이용자의 접근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이자 치유서의 카테고리화를 위해서, 증상 및 상황별 키워드와 대상 키워드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치유서를 분류하고 있다.

기존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대부분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 독서목록(혹은 대체자료 목록)은 별도로 작성되거나 간행되어 있지 않다. 이는 2장과 3장에서 실시한 선행연구와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의 현황조사의 일환으로, 기존의 독서치료 독서목록 내의 치유서와 장애인도서관에서 제공되는 대체자료를 조사 및 비교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독서치료 관련 대체자료의 현황과 함께 일차적으로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목록을 제안하였다.

장애인도서관에서는 기존의 도서관 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변환하고 제작하여 대체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체자료 가운데 독서치료와 관련성이 있는 대체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 치유서로 선정된 도서와 동일한 대체자료가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대체자료의 제작여부와 함께 대체자료가 나타나고 있는 키워드에 대한 조사를 아래의 3개의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였다.

- ① 국내의 대표 독서치료 독서목록을 3개 선택하여 각 독서목록에서 치유서를 모두 수집한다.
- ② 대체자료의 변환 및 제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한국점자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치유서의 검색을 실시한다. 검색과정에서 치유

서와 대체자료의 서지정보를 비교 및 검토하여 대체자료와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 ③ 독서치료와 관련성이 있는 변환 및 제작된 대체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도서관별로 분류하여, 도서관별로 구비하고 있는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의 점/권수, 유형, 키워드 등을 분석 및 나열한다.

국내의 다양한 독서치료 독서목록 가운데, 선택한 3개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총 10개의 목록)⁵⁾으로부터 총 2,311권의 치유서를 수집하였고, 대체자료와 비교검색을 실시하였다. 다만, 검색과 조사결과를 일괄적으로 나열하기에는 치유서의 양이 방대하고 도서관 내의 대체자료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 조사결과는 독서치료 독서목록별로 구분하고 정리하여 나열하였다.

4.1.1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한국도서관협회, 2007)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은 2007년 한국도서관협회에 의해 작성한 목록으로 도서자료와 영상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는 대상 키워드(성인, 청소년, 어린이)와 상황 및 증상 키워드(상위개념 키워드와 하위개념 키워드)에 의해 카테고리화되어 있고, 이들 자료 가운데 치유서는 총 248권이 제공되고 있다.

치유서의 대체자료 제작 및 변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치유서 검색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248권의 치유서 가운데 도서관별 28점/권(국립장애

5)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남산도서관의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2007~2014, 총 8개),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2007~2014, 증보판 1개), 한국도서관협회의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2007, 증보판 1개)이다.

인도서관), 100점/권(한국점자도서관)의 대체자료가 제작되어 소장 및 이용되고 있었다. 대체자료의 중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서관의 검색 결과를 통합하여 살펴보았고, 이 과정에서 총 14점/권의 중복자료를 발견하였다. 즉,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에서 제공하는 치유서와 동일한 대체자료는 총 114점/권(치유서의 45.96%)으로, 이들 자료는 장애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자료의 제작여부와 대체자료의 형태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독서치료와 관련성이 있는 대체자료의 자료유형은 대부분 아날로그 녹음도서와 (전자)점자도서로, 이 외에는 수화영상도서, 데이지자료(텍스트, 음성, 음성과 텍스트), 보이스 브레일도서 등으로 제작되어 있었다. <표 2>에서는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내의 치유서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대체자료의 점/권수와 유형을 수치

로 보여주고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국가대체 종합 목록을 통해서 소장자료뿐만 아니라 검색자료에 대한 타도서관의 소장여부 및 자료유형을 제공하고 있다. 독서치료 관련 대체자료의 제작여부를 좀 더 넓게 살펴보기 위해 국가대체종합목록을 이용하여 타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독서치료 관련 대체자료를 살펴보았다. 총 248권의 치유서 가운데 120점/권(114점/권포함)이 국내의 각 도서관에서 이용 및 소장되어 있었다.

상처, 증상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가 독서치료 관련 대체자료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에 접근을 도와주는 키워드가 필요하다. 이에 다음에서는 수집한 총 114점/권의 독서치료 관련 대체자료를 바탕으로 자료가 나타내고 있는 주제분야와 키워드를 기존 독서목록의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이를 나열하였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목록의 작성

<표 2> 한국도서관협회의 독서치료 목록 치유서와 동일한 대체자료의 현황

		국립장애인 도서관	한국점자도서관
데이지 자료	음성플레이		10
	텍스트데이지	2	
	전체데이지	8	
(전자) 점자 자료	점자도서	3	51
	점자라벨도서		14
	전자점자도서	3	
아날로그 녹음도서			25
화면해설영상			
수화영상도서		9	
자막영상자료			
시각원문자료		1	
비디오녹화자료			
보이스브레일도서		1	
기타	TEXT전자도서	1	
	큰글자도서		
합계		28	100

목적과 특징에 따라서 대상 키워드와 상황 및 증상별 키워드의 명칭 및 구성이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 키워드를 '성인'과 '청소년과 어린이'로 구분하고, 각 목록의 상위 개념 키워드를 이용하여 대체자료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14점/권의 독서치료 관련 대체자료는 42.31%의 성인자료와 57.69%의 청소년과 어린이자료로 구성되어 성인자료에 비해 청소년과 어린이자료가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성인자료에 있어서 주된 주제분야이자 상황 및 증상별 키워드에는 건강과 질병, 죽음(30.3%)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성격과 정서(27.27%),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가정/가족관계 등의 순서로 대체자료를 구성하고 있었다. 청소년과 어린이자료에서는 가정(30.23%), 정서문제(23.26%)에 관련된 대체자료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자아성격, 학교, 학대/폭력/성폭력 등의 순서로 대체자료의 분야를 보여주고 있었다.

4.1.2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남산도서관, 2007~2014)

남산도서관의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은 2007년부터 간행되어 총 9개⁶⁾의 도서자료집이 남산도서관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다. 총 9개의 독서목록은 모두 도서자료로 구성되어 있고, 2015년을 제외한 8개의 독서목록에서는 총 1,191권의 치유서를 제공하고 있다.

각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서 총 1,191권의 치유서를 조사 및 검색한 결과, 도서관별로 182점

/권(국립장애인도서관), 147점/권(한국점자도서관)의 대체자료가 제작되어 소장 및 이용되고 있었다. 도서관별의 검색으로 인해 대체자료의 중복이 발생될 수 있어 자료비교를 실시하여 중복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58점/권의 대체자료의 중복이 확인되었다. 즉, 남산도서관의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전체 치유서 가운데 대체자료는 총 271점/권으로, 치유서의 22.75%가 대체자료로 제작 및 소장되어 있었다. 이들 대체자료는 음성 데이터자료와 전체 데이터자료, 점자도서가 주된 자료유형이었고, 그 외 점자라벨도서, 수화영상도서 등으로 제작되어 있었다.

국가대체종합목록에 의하면, 총 1,191권의 치유서 가운데 474점/권(271점/권을 포함)의 대체자료가 국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었고, 이들 자료에는 휴먼음성자료, TEXT전자도서, 디지털 음성자료 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제작되어 제공되고 있었다. <표 3>에서는 남산도서관의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치유서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대체자료의 수량과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총 271점/권의 독서치료 관련 대체자료의 대상 키워드와 증상 및 상황 키워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71점/권의 대체자료 가운데 성인자료가 50.64%, 청소년과 어린이자료가 49.36%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고, 성인자료의 주된 키워드는 정신건강/마음의 상처(21.01%), 직장/성공/사회(21.01%)였다. 청소년과 어린이 자료는 정서(23.28%)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신체(장애)/성문제(17.24%),

6) 2016년 10월 현재, 남산도서관의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은 2015년에 발간된 도서자료집을 포함하여 총 9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15년의 도서자료집을 제외한 2014년까지의 독서목록, 총 8개의 독서목록을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 남산도서관의 독서치료 독서목록 치유서와 동일한 대체자료의 현황

		국립장애인도서관	한국점자도서관
데이지 자료	음성플레이		66
	텍스트데이지		
	전체데이지	90	
(전자) 점자 자료	점자도서	6	71
	점자라벨도서		25
	전자점자도서	3	
아날로그 녹음도서			
화면해설영상			
수화영상도서		41	
자막영상자료			
시각원문자료		6	
비디오녹화자료			
보이스브레일도서		2	
기타	TEXT전자도서		
	큰글자도서		2
합계		147	182

가정/가족관계, 대인관계, 자아/진로 등의 순으로 대체자료가 구성되어 있었다.

4.1.3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부산대학교 도서관, 2014)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은 2006년부터 도서자료를 검토 및 발굴하여, 현재까지 개발한 4개의 독서목록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대체자료의 대상 키워드는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도 성인이라고 판단하여 대상 키워드를 성인자료로 결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에서 제공하는 치유서는 총 872권으로, 두 곳의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대체자료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도서관별로 91점/권(국립장애인도서관), 80점/권(한국점자도서관)의 대체자료가 제작되어 소장 및 이용되고 있었다. 이들 대체자료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교를 실시한 결과, 총 25점/권의 중복자료가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해보면,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에서 제공하는 치유서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대체자료는 총 146점/권(치유서의 16.74%)으로, 이들 자료는 음성플레이 데이지자료, 전체 데이지자료, 그리고 (전자)점자도서와 같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표 4〉에서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총 146점/권의 독서치료 관련 대체자료의 증상 및 상황별 키워드를 이어서 살펴보았다. 부산대학교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은 6~8개의 상위개념 키워드를 이용하는 치유서를 분류하는 다른 목록과 다르게, 30개의 상위개념 키워드를 이용하여 치유서를

〈표 4〉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독서치료 독서목록 치유서와 동일한 대체자료의 현황

		국립장애인도서관	한국점자도서관
페이지 자료	음성플레이		56
	텍스트페이지		
	전체페이지	54	
(전자) 점자 자료	점자도서	9	62
	점자라벨도서		
	전자점자도서	3	
아날로그 녹음도서			5
화면해설영상			
수화영상도서		17	
자막영상자료			
시각원문자료		9	
비디오녹화자료			
보이스브레일도서		1	
기타	TEXT전자도서		
	큰글자도서		2
합계		91	80

분류하고 있다. 다른 목록들에 비해 키워드가 많기 때문에, 다른 목록의 결과보다는 대체자료가 좀 더 상세하게 분류되었고, 이로 인해 주제별 비중 또한 수치가 적게 나타났다.

총 146권의 대체자료의 주된 증상 및 상황별 키워드는 정신건강(13.7%)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성장의 아픔(8.22%), 부모와 자녀, 삶과 죽음, 대인관계, 일상의 벽 등의 순으로 나열되고 있었다.

국내의 대표 독서치료 독서목록을 이용하여 치유서가 대체자료로 번안 및 제작된 수량, 유형, 그리고 대체자료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대상, 증상 및 상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많은 양의 치유서로 인하여 각각의 목록별로 나눠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자료로 번안 및 제작된 치유서는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양이었고, 일반 치유서에 비하면 매우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

자료 목록의 작성과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앞서 치유서 검색과 비교를 통해서 수집한 대체자료를 이용하여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목록의 일부분을 예시로 제안하였다.

4.2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목록 제안

본 장에서는 4.1장에서 실시한 독서치료 관련 대체자료 현장조사와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을 이용하여,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목록을 간단히 제안하고자 한다.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목록은 앞서 치유서 검색을 통해서 수집된 대체자료로 구성하였다. 다만, 대체자료의 수집은 독서 치료 독서목록별로, 도서관별로 각각 실시했기 때문에 수집된 전체 자료 역시 중복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래서 대체자료 목록의 제안

에 앞서 수집된 전체 대체자료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3개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 제공하는 총 2,311권의 치유서 가운데 420점/권⁷⁾이 대체자료로 번안 및 제작되어 있었다.

총 420점/권의 독서치료 관련 대체자료를 가지고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목록의 일부를 작성하였다. 우선, 대상 키워드를 적용하여 분류를 실시하여 대체자료의 이용대상자를 확인하였다. 전체의 대체자료 가운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는 261점/권(전체의 62.14%),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대체자료는 159점/권(전체의 37.86%)으로, 대체자료의 목록에서 성인자료가 청소년과 어린이 자료에 비해 약 1.5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상 키워드와 함께, 증상 및 상황별 키워드를 활용하여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의 분류를 실시하였다.

성인자료는 36개의 증상 및 상황 키워드에 의해서, 청소년과 어린이 자료는 13개의 키워드에 의해서 카테고리화하였다. 이들 키워드는 대체자료 목록의 구성에 있어서 토대가 된 3개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상위개념 키워드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카테고리는 기존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 치유서에 따라서 부여한 카테고리이자 키워드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제안 혹은 제공하지 않고 기존의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대체자료를 분류하였다.

〈표 5〉에서는 대체자료 목록에서 사용된 성인자료와 청소년과 어린이자료의 상황 및 증상별 카테고리화,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대체자료의 점/권수를 정리해서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독서 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목록의 일부분의 예는 〈표 6〉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6〉은

〈표 5〉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목록의 카테고리화 점/권수

성인 자료							
가부장사회	1	가정/가족관계/부부관계	31	감정관리	1	강박	1
건강과 질병, 죽음	26	결혼과 이혼	5	나이듦/장애	7	대인관계	9
마음의 평화	9	부모와 자녀	10	불안	1	사랑	2
상실감	4	삶과 죽음	5	성격과 정서	9	성인아이	1
성장의 아픔	9	성폭력	1	신체/성문제	1	소통	5
어른들의 몰이해	1	여자와남자	5	일상의벽	7	우울	2
자기존중	4	자기학대	1	자아/성격	9	자아찾기	6
정서	10	정신건강/마음의 상처	46	직장/성공/사회	26	중독	1
학교	3	화/분노	1	독서치료 참고도서	2	영화를 통한 치유	5
청소년/어린이 자료							
가족/가족관계	30	건강/질병/죽음	2	대인관계	21	일탈	1
자아/진로	16	신체(장애)/성문제	23	여자/성역할	4	자아/성격	5
자아정체성	1	정서/정서문제	37	청소년 일탈	7	학교	10
학대/폭력/성폭력	2						

7) 3개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을 통해 수집된 치유서는 총 2,311권으로, 이 가운데 459점/권이 대체자료로 번안되어 제공되고 있었고, 39점/권의 대체자료가 중복되어 있었다.

〈표 6〉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목록의 예

증상 및 상황카테고리	대체자료 서명	소장도서관	자료유형	서지정보	
건강/질병/죽음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국립장애인 도서관	전자점자자료	저자(역자)	강영우
				출판사	두란노
		한국점자 도서관	점자도서	출판일자	2012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국립장애인 도서관	전체DAISY자료	저자(역자)	위지안 지음 이현아 옮김
		한국점자 도서관	점자도서	출판사	예담
			DAISY 녹음도서	출판일자	2012
청소년 일탈	게임 중독 벗어나기	국립장애인 도서관	전체DAISY자료	저자(역자)	권재원
				출판사	이담
				출판일자	2010
	까칠한 재석이 사라졌다	국립장애인 도서관	텍스트 데이터자료	저자(역자)	고정욱
				출판사	비전비엔피·애플 북스
				출판일자	2009
			점자도서	출판사	BF북스
				출판일자	2013
			큰글자도서	출판사	BF북스
				출판일자	2012
			TEXT 전자도서	출판사	비전비엔피·애플 북스
				출판일자	2012
			휴면음성자료	출판사	인티큐브
				출판일자	2011
			디지털음성자료	출판사	애플북스
				출판일자	2008
		한국점자 도서관	큰글자도서	출판사	BF북스
				출판일자	2012

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 대체자료 목록 가운데 청소년/어린이 자료의 일부분을 보여준다.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목록에서는 1점/권의 대체자료당 5개의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대상 키워드와 증상 및 상황별 키워드(혹은 카테고리)를 1차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들 카테고리에 의해 분류된 각 대체자료는 자료별로 소장 도서관과 소장 도서관

에서 제공하는 자료유형, 그리고 각 자료유형에 따른 서지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이용자는 독서치료 대체자료 목록을 통해서 여러 장애인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검색하지 않아도 자신의 상황 및 증상에 해당하는 대체자료, 자신이 원하는 자료유형으로 제작된 대체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양한 방면에서 대체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일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가 이에 관련된 대체자료, 특히 점자도서에서의 접근을 원하는 경우, 이용자는 1차적으로 “청소년 일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대체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2차적으로 자료유형을 통해서 원하는 대체자료, 즉 점자자료로 제작된 ‘까칠한 재석이 사라졌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목록을 본격적으로 구성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시각에서 준비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의견반영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목록의 이용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인쇄물이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목록보다는 음성자료나 점자자료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방안, 혹은 대상 키워드와 상황 및 증상별 키워드 작성을 위해 장애 발생시기, 명칭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좀 더 상세하게 대체자료를 카테고리화하여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장애인의 시각을 고려해서 작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독서치료 독서 목록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목록을 구성 및 작성하여 제안하였다.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목록은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에의 접근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어서 아직 많이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을 실시해야 하겠지만, 이 연구는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개발 및 목록 구성에 있어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5. 결 론

장애인은 장애를 지니고 있어 열등감, 소외감, 불안감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상처를 가지고 있고, 비장애인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2배나 높다. 그러나 장애인의 심리적인 상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원은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상황이다.

정신건강과 심리를 치유 혹은 치료하기 위한 치료법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는 책을 치료매체로 이용하는 독서치료가 있다. 독서치료는 책을 이용하여 혹은 독서를 통해서 치유되는 자가 치료법으로, 독서치료 대상자, 독서치료를 위한 도구인 책, 그리고 책을 이용한 독서행위를 통해서 실시된다. 독서치료에 있어 책은 필수요소이자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독서치료는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서행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스스로 책을 선정하여 독서를 실시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 가운데 책 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지는 못하지만 장애인이 책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 책을 대신하여 제작된 대체자료가 있다. 즉, 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에서는 대체자료가 독서치료의 도구이자 매체이고, 대체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독서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독서치료를 위한 도서, 즉 치유서와 함께 치유서를 제공하는 독서치료 독서목록이 필요하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다양한 치유서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스스로 치유서에 선택 및 접근하여 자가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각종 기관 혹은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대부분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별도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심리적, 정신건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원인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와 대체자료 목록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조사와 분석은 장애인도서관 사서와의 인터뷰와 설문지 조사를 통해 진행하였고, 기존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 제공하는 치유서를 수집하여 장애인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비교 검색하여 대체자료의 제작여부와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사서와의 설문지와 인터뷰조사를 통해서 장애인도서관에서는 현재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3장에서 언급했듯이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목록의 개발에도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만,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의 제작은 물론, 독서치료의 진행에 있어서 장애인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정보전달에 있어서의 시간 제약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어서, 기존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을 이용하여 치유서와 동일한 대체자료의 제작여부, 대체

자료의 점/권수와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각의 목록별로 치유서 검색을 실시하여 모두 취합한 결과, 총 2,311권의 치유서 가운데 420점/권이 대체자료로 제작되어 있었다. 전체 치유서의 약 18%만이 대체자료로 제작 및 번안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의 주된 정보원으로 이용되는 대체자료의 부족한 현황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줬다.

독서치료를 위해서는 대체자료 목록이 필요한 만큼, 저자는 앞서 수집한 독서치료 관련 대체자료를 분석하고 이용하여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목록을 제안하였다.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목록은 기존의 독서치료 독서목록과는 다르게 대체자료의 고유성을 고려하여 대체자료의 소장도서관, 자료의 유형, 자료의 유형에 따른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체자료별로 제공되는 이들 정보들을 이용함으로써 장애인 이용자는 다양한 방면에서 원하는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체자료 목록을 제안한 것이다.

저자는 본 연구를 통해서, 장애인을 위한 독서치료를 위한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그리고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목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체자료 역시 장애인 이용자에게 있어 필요한 정보원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저자는 앞으로의 과제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목록에 대한 검증과 함께, 독서치료를 위한 대체자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참 고 문 헌

- [1] 국립장애인도서관. 2016.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서울: 국립장애인도서관. [online] [cited 2016. 10. 16.] <<http://nlid.nl.go.kr/able?act=bookLibraryList>>
- [2] 국립장애인도서관. 2015.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이론과 실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3] 국립중앙도서관. 2014. 『2013년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4] 국립중앙도서관. 2012. 『2011년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5] 김선호. 2011. 문헌정보학 분야의 신체장애 및 독서 치료 관련 연구 동향. 『사회과학연구』, 22(1): 133-150.
- [6] 김용수. 2012. 독서치료를 활용한 사회통합 인성 프로그램이 장애·비장애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1(1): 1-23.
- [7] 김정근. 2004. 김정근의 독서치료 이야기. 『출판저널』, 342: 148-149.
- [8] 김정심, 남영준, 서만덕. 2015. 전자출판물 활용을 위한 독서장애인 요구에 관한 연구: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4): 75-97.
- [9] 백록담, 김유승. 201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대체자료 연구: 정책 및 법령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1): 135-155.
- [10] 백재은. 2015.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의 카테고리화 치유서의 관계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2): 217-239.
- [11] 보건복지부. 2015.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online] [cited 2016. 10. 16.]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
- [12] 원동연, 유혜숙, 유동준. 2013. 『5차원 독서치료』. 파주: 김영사.
- [13] 이현주, 강상경. 2009. 장애인의 스트레스, 심리사회적 자원 및 우울의 관계: 한국복지패널 장애인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3: 193-217.
- [14] 장보성, 김규환, 이현정. 2009. DAISY 포맷 기반의 디지털음성도서 개발 및 서비스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295-315.
- [15] 표윤희. 2014.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담당 사서의 인식 조사. 『특수교육』, 13(2): 239-268.
- [16] 한국도서관협회. 2004.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7] 한국점자도서관. 2016. 『한국점자도서관 홈페이지』. 서울: 청송교육문화진흥회. [online] [cited 2016. 10. 16.] <<http://infor.kbll.or.kr/index/index.php>>
- [18] 황릉선, 공순군. 2015.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 운영체계 및 시설기준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년 4월 24일, 서울: 명지대학교: 153-15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2016.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Homepage*. Seoul: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online] [cited 2016. 10. 16.]
 <<http://nlid.nl.go.kr/able?act=bookLibraryList>>
- [2]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2015. *Theory and Practice of Library Disability Services*.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3]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4. *Abroad Case Research of Library Services for the Intellectual Autistic Disabled and Domestic Applied Model Development*.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4]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2. *Abroad Case Research of Library Services for the Intellectual Autistic Disabled and Domestic Applied Model Development*.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5] Kim, Seon-Ho. 2011. "The Research Trend on Physical Disability and Bibliotherapy in LIS." *Journal of Social Science*, 22(1): 133-150.
- [6] Kim, Yong Soo. 2012. "The Effects of Reading Therapy-based Social Integration Personality Program on College Students' Self-esteem and Social Sense of Distanc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1(1): 1-23.
- [7] Kim, Jung-Gun. 2004. "Bibliotherathpy Story of Kim Jung-Gun." *The Korean Pubishing Journal*, 342: 148-149.
- [8] Kim, Jung-Sim, Nam, Young-Joon and Seo, Man-Deok. 2015. "A Study on the Needs of the Print-Disabled for Utilization of the Electronic Publication: Focused on the Visually Disabled and the Deaf."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4): 75-97.
- [9] Baek, Rokdam and Kim, You-Seung. 2016. "A Study on the Materials at Libraries for the Disabled: Focused on the Analysis of Related Policies and Legislatio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1): 135-155.
- [10] Baek, Jae Eun. 2015. "A Study on Relation Analysis between Book and Category in Bibliotherapy Catalog."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2): 217-239.
- [1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2014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for the disabled*.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nline] [cited 2016. 10. 16.]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

- [12] Won, Dong-Yeon, Yoo, Hae-Sook and Yoo, Dong-Jun. 2013. *Bibliotherapy*. Paju: Gimmyoung.
- [13] Lee, Hyun-Joo and Kahng, Sang-Kyoung. 2009.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ors, Psychosocial Resources, and Depression amo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Mental Health & Social Work*, 33: 193-217.
- [14] Jang, Bo-Seong, Kim, Gyu-Hwan and Yi, Hyun-Jung. 2009. "A Study on Revitalization and Development of Digital Talking Book Based on the DAISY Forma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295-315.
- [15] Pyo, Yun Hui. 2014. "A Survey of Current Status and Activation Plans of Library Services and Program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Libraria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Research*, 13(2): 239-268.
- [16] Korea Library Association. 2004. *Bibliographic Tool for the Bibliotherapy*.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 [17] Korean Braille Library. 2016. *Korean Braille Library Homepage*. Seoul: Korean Braille Library. [online] [cited 2016. 10. 16.] 〈<http://infor.kbll.or.kr/index/index.php>〉
- [18] Huang, long-xin and Kong, Soon-Ku. 2015. "A Study on the National Library for the Blind Operating System and Facilities Standards." In *Proceedings of the Spring Annual Conference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April 24th, 2015, Seoul: Myungji University: 153-156.